

첨단산단 차질 무책임한 LH

“준설토 운반비 35억 없다” 성토 못해 준공 지연 우려

재정난에 빠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흙을 구해 놓고도 운반할 돈이 없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산단 준공 시기도 올해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어서 입주 예정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2일 광주시와 LH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LH는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2단계 사업에 필요한 흙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올해 초까지 만해도 흙을 구하지 못해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건설사 등에 구걸하다 시피 하더니, 이제는 가까스로 구한 흙을 운반할 비용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산단 2단계에 필요한 흙은 덤프트럭(24t) 40만6000대 분량인 486만㎥에 달한다. 현재까지 반입된 흙이 362만㎥이고, 확보된 양은 14만㎥로, 아직도 110만㎥가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첨단산단 1단계 매립지 부지 성토에 23만6000㎥가 필요해 이를 합하면 총 133만6000㎥가 공급돼야 한다. 덤프트럭 10만3000대 분량이다.

LH는 부족분 중 73만6000㎥를 영산강 준설토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지난 1월 영산강 7공구(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천 합류부~북구 용전동 용산교 14km)에서 나오는 준설토 23만6000㎥를 1단계에, 50만㎥를 2단계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2단계의 경우 상차(차량 싣기)는 광주시가, 운반은 LH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준설토를 반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LH가 첨단2산단 성토작업에 필요한 흙을 구해놓고도 운반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 북구 첨단2산단 조성 공사 현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난이 심각한 LH가 35억원에 달하는 운반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준설토 운반에 차질이 생겼다.

LH는 첨단산단이나 영산강살리기 모두 국책사업이라며 광주시에 운반비용 부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영산강살리기 사업비에 운반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불가능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영산강살리기관리청에 ‘영산강7공구 준설토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운반

비용을 광주시에 전가하려다가 안되자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흙 문제가 풀리지 않자 LH는 아예 성토 높이(계획고)를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LH 한 관계자는 “성토할 흙이 부족해 당초보다 계획고를 1m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획고를 1m 낮추면 70만㎥의 흙이 필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LH는 조만간 ‘계획고 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첨단산단 2단계 개발계획변경안 마련해 국토해양

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2단계는 지형이 낮아 계획고를 낮출 경우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입주 예정 기업들이 제 때에 입주하지 못해 생산 차질 등 경제적 피해도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첨단2산단의 경우 예산 논의로 지대가 낮고 인근에 영산강이 흐른다”며 “계획고를 무리하게 낮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급식 쌀 할인 중단 방침 논란

정부 2012년부터...무상급식 예산 확보 차질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학교 급식용 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중단하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학교급식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이 추진하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12일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이유로 2012년부터 학교 급식을 쌀에 대한 할인을 중단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매년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7년(5만9187t)에 비해 공급 물량이 줄었음에도 쌀 판매 금액은 2007년 580억3300만원에서 2008년 669억4100만원, 2009년 776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 측은 “공공비축 미곡을 시가로 매입·방출해야 한다”는 세계 무역기구(WTO) 농업에 관한 협정문 부속서 규정을 근거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학교급식용 쌀 할인이 폐지되면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에 비해 학교급식비가 연간 580억 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급식용 쌀 할인이 폐지되면 부담은 결국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정부양곡의 학교급식용 할인 공급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에 근거해 허용대상보조의 하나인 국내 식량지원에 해당하므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에 어긋나지도 제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을 축소와 폐지를 결정할 의욕이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각종 FTA 추진과 체결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 목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을 축소 및 폐지를 결정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중국 국보급 작품 첫 해외나들이

오는 9월3일 개막하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11월7일까지)는 ‘만인보’를 주제로 31개국에서 134명의 작가가 참여해 현대 미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개막 20여 일 앞두고,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는 세계인의 가슴을 설레게 할 환상적인 작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이번 전시를 장식하게 될 대표작을 미리 소개한다.

문화혁명 초기에는 선전의 도구로도 사용된 중국의 국보급 작품이며,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전시된다.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인 올해 열리는 전시인 만큼, 광주를

행시 사라진다 내년부터 5급 절반 민간전문가 특채

내년부터 고위 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성고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르면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 중 필기시험 없이 특별채용한다. <관련기사 3면> 행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60여년간 지속된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 따르면 우선 이르면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를 특채로

선발한다.행안부는 외부 전문가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내년에 선발 정원 30%를 뽑고선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5년부터는 50%를 채용할 계획이다. /연말뉴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세월호 최고 안전선...
보문고등학교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광신대학교

